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5. 2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5/20~5/24)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 제시에도 위안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동조화되며 상승 전환. 이어 연준 위원들의 선부른 금리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1360원대로 추가 상승
- 중반, 매파 성향의 월리 연준 이사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하며 안도했으나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소폭 하락
- 후반, 매파적 기조를 드러낸 5월 FOMC 의사록에도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 강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등에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미국 S&P글로벌 PMI 호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지속 우려와 달러 강세에 상승 전환 후 1360원대 후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제한 등이 달러 약세 견인 요인. 다만 미 내구재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여전히 탄탄한 경제 체력 등이 약세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여기에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효과 등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를 후광으로 한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강화 가능성 등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4.0	1,371.9	1,354.0	1,369.5	+15.5

예상거래범위

1,355원 ~ 1,370원



엔·유로화 동향 (5/20~5/24)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경로 불확실성이 달러 강제 압력으로 작용하며 유로화는 상대적 약세 출발. 이어 독일 4월 PPI가 둔화된 측면이 ECB 6월 금리인하 기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약세 지속
- 중반, 5월 FOMC 의사록 내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에 연준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며 약세 심화
- 후반, 루이스 드 퀸도스 ECB 부총재가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요아힘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의 발언에 유로화 가치 반등 후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측면이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하며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 이어 월리 Fed 이사의 추가 금리인상 배제 발언으로 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에 소폭 강세
- 중반, 예상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낸 FOMC 의사록을 반영한 글로벌 강달러와 일본 무역수지 적자 소식 등이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 후반, 미국 PMI 호조와 견조한 고용 등에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약세 지속. 이어 주 후반, 간다 마사토 재무관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실개입 경계감이 재차 고조됨에 따라 추가 약세는 제한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69	1.0885	1.0805	1.0846	-0.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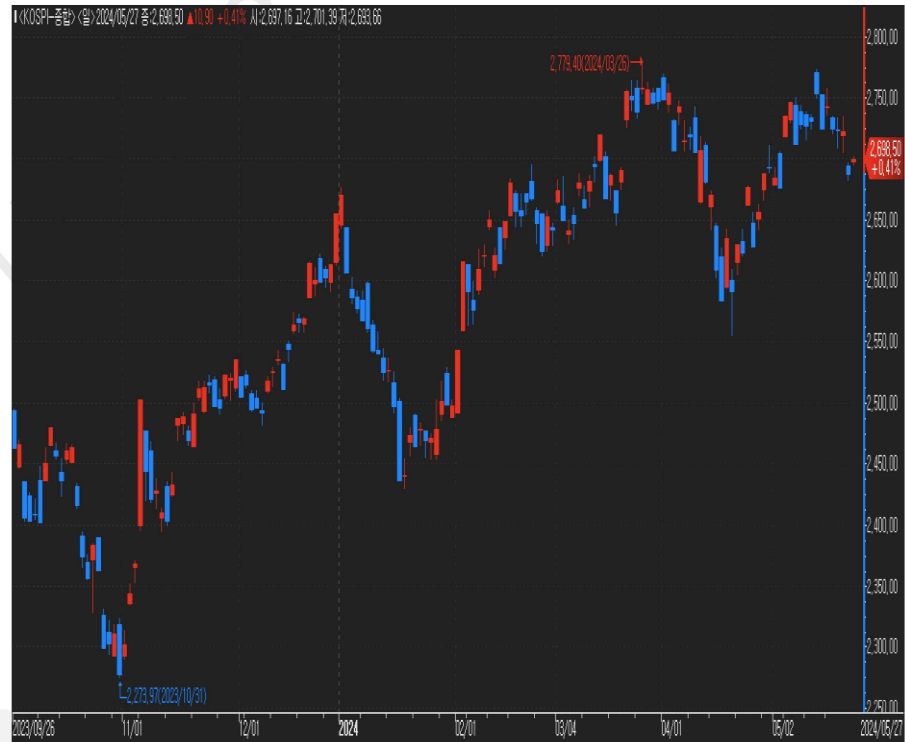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5.6	157.2	155.5	156.9	+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5/20~5/2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 보인 영향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출발 이어 연준 인사의 매파적 통화정책과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 속에 강보합 양상
- 중반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과 영국 물가 상승 추세 영향 등을 반영하는 가운데서도 연준내 매파 인사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 언제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등을 반영
-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 회의 결과, 총재 발언이 시장 기대보다 비둘기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영향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언급이 이어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 움직임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저PBR주 강세 속에 기관 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세 속에 소폭 약보합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정부의 공매도 재개 가능성 일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심리 강화 영향에도 미국 기업 실적 발표와 5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경계 심리 등으로 약보합 흐름 이어진 국면
- 후반 들어,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상승 모멘텀 속에 정부의 반조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 방안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형국. 여기에 금통위의 올해 국내 성장 전망 상향 등도 코스피 상승 전환에 영향. 주 후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를 약화시킨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투매 등으로 크게 하락하며 마감